금탄리 I 식토기의 재검토

安承模(원광대학교 인문학부)

I. 머리말

최근 군산 앞 바다의 노래섬과 가도패총의 발굴 결과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궁산문화 3기를 대표하는 금탄리 I 식토기의 정의와 연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영덕 2001). 노래섬과 가도패총에서 출토된 단사선문과 조대문이 전면에 반복시문되는 토기 형식을 금탄리 I 식토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금탄리 I 식토기가 중기를 대표하는 토기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김장석과 양성혁(2001, 13-15)은 대동강유역에서 금탄리 I 식토기의 존속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하나의 분기(궁산3기)로 설정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하였다. 금탄리 I 식토기는 금탄리에서 오직 한 개의 주거지에서만 다른 공반양식 없이 출토된 것으로 이 주거지를 제외하면 어떠한 유적에서도 금탄리 I 식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문화층이나 주거지가 없으며 1문화층과 2문화층의 구분이 확실한 중복관계나 층위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뉘어진 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금탄리 I 식토기가 중서부 중기에서 후기 이른 시기에 걸쳐 오랫동안 사용된 것(임상택 1999)이 아니라 금탄리1식토기와 공반되는 가도의 구연한정단사선문, 한강유역의 구분문계 어골문, 영종도의 전면횡주어골문을 모두 동시기로 편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1999)도 노래섬패총 출토의 단사선문토기를 구분문계가 해체된 후기로 파악하는 한편 단사선문과 조대문의 반복시문토기를 기형과 반복시문의 공통성에서 금탄리 I 식토기로 본 바 있다. 그러나 노래섬 패총 출토토기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필자의 舊稿는 노래섬 출토 토기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되었기 때문에 금탄리 I 식토기와 노래섬의 소위 '帶狀反復紋' 토기를 모두 '區劃反復紋' 토기로 통합하여 양자의 관계와 계통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추려보도록 하겠다[1].

---

1) 원래 이 글은 호남문화재연구원의 이영덕과 함께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이영덕의 개인적 사정으로 필자 단독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필자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영덕과의 토론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는 하나 필자와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논문이 이영덕에 의해 발표되기를 기다려 보겠다.